



미 증시, FOMC 의사록을 소화해가면서 혼조세 마감

미국 증시 리뷰

22 일(수) 미국 증시는 전일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매수세 유입 속 매파적이었던 FOMC 의사록 결과, PCE 지표 경계심리 등이 혼재되면서 혼조세 마감 (다우 -0.26%, S&P500 -0.16%, 나스닥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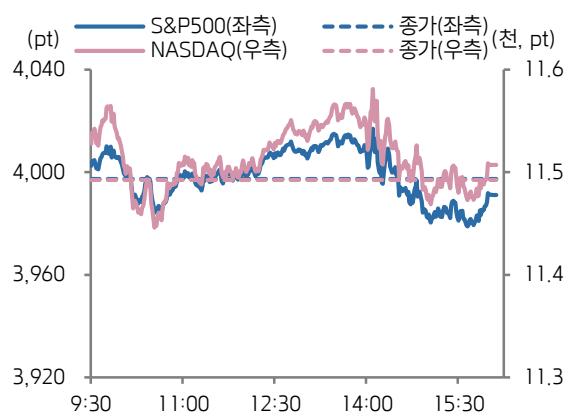
2 월 FOMC 의사록에서 대부분 위원들이 25bp 인상이 적절하다는 것에 찬성, 2 명의 위원은 50bp 인상을 지지. 또한 노동시장이 "여전히 매우 타이트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최근의 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해 환영하지만 "인플레가 지속해서 하락한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광범위한 물가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진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내용 언급.

대부분 위원들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앞으로도 경제 상황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데 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 그러나 FOMC 직후 50bp 인상을 지지하는 매파적 태도를 보였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날 "급격히(sharp)"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

유로존 전체 수치에 앞서 발표된 독일 1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배 8.7%(예상 8.7%, 전월 8.1%) , 전월대비 1.0%(예상 1.0%, 전월 -0.4%) 기록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전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12 월 20.3% 증가에서 지난 1 월에는 23.1%로 증가세가 가속화된 것에 기인. 1 월 IFO 기업환경지수는 91.1(예상 91.2, 전월 90.1)로 전월대비개선. 물가 재상승과 양호한 경제지표로 ECB 추가긴축 우려는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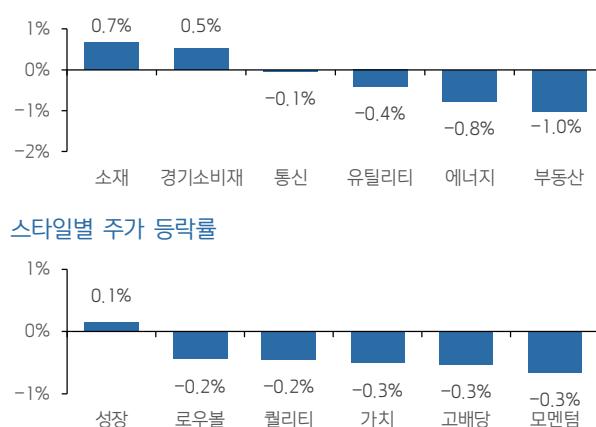
소재(+0.7%), 경기소비재(+0.5%) 업종만이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1%), 에너지(-0.8%), 유틸리티(-0.4%)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 바이두(-2.63%)는 4 분기 실적 발표에서 비용절감으로 인한 매출 서프라이즈와 2025 년말까지 최대 50 억 달러의 자사주에 대한 매입 프로그램 발표, 자체 AI 어니봇이 3 월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힌 영향으로 시간외 7%대 강세를 보였으나 장중 상승폭 반납하며 하락 마감.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1.89%)는 시티가 중국 경제회복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조정한 영향으로 강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17.68	-1.68%	USD/KRW	1,305.14	+0.71%
코스피 200	315.94	-1.75%	달러 지수	104.55	+0.36%
코스닥	778.51	-1.88%	EUR/USD	1.06	-0.41%
코스닥 150	1,121.96	-2.73%	USD/CNH	6.91	+0.21%
S&P500	3,991.05	-0.16%	USD/JPY	134.91	-0.07%
NASDAQ	11,507.07	+0.13%	채권시장		
다우	33,045.09	-0.26%	국고채 3년	3.632	+1.7bp
VIX	22.29	-2.54%	국고채 10년	3.629	+3.4bp
러셀 2000	1,894.68	+0.34%	미국 국채 2년	4.695	-2.7bp
필라. 반도체	2,892.39	-0.48%	미국 국채 10년	3.923	-2.9bp
다우 운송	14,553.39	-0.63%	미국 국채 30년	3.919	-5.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42.88	-0.18%	WTI	73.87	-3.26%
MSCI 전세계 지수	636.57	-1.48%	브렌트유	80.45	-3.13%
MSCI DM 지수	2,740.38	-1.54%	금	1834.5	-0.43%
MSCI EM 지수	995.19	-1%	은	21.51	-1.74%
MSCI 한국 ETF	59.52	-0.98%	구리	417.65	-1.1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8%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1.7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2 월 FOMC 의사록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국내 관련주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
3. 한은 금통위 결과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FOMC 의사록의 시사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2 월 FOMC 때처럼 이번에 공개된 FOMC 의사록 역시 매파적인 색채가 묻어나왔으나, 어느정도 시장이 이미 가격적인 측면에서 반영해온 범위(or 수위)를 넘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나타난 극심한 주가 변동성 출현 이후 낙폭을 회복한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작년 1 월처럼 FOMC 의사록이 향후 증시 방향성에 큰 충격을 가하는 재료는 아니었음. 주식시장에서는 3 월 FOMC 전까지 상방이나 하방으로 방향성을 베팅하는 분위기가 아닌, 지표를 확인해가면서 사후적으로 대응해가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

FOMC 의사록을 살펴보면, 일부 위원들은 2 월 50bp 인상이나 2 월에 하지 못하면 이후의 회의에서 50bp 인상을 할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2%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제약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음. 또한 최근 3 개월간 인플레이션 하락은 반길 만한일이지만, 물가가 내려간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짐.

이상의 내용들은 연준의 추가 긴축을 자극하면서 증시 불안을 유발할 법 했던 것은 맞음.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1 월 고용과 물가 서프라이즈를 겪으면서 최종금리 전망치 상향(5.25%→5.5%)이 이루어졌고, 2 월 중순 이후 몇 차례 주가조정을 통해서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를 반영해왔던 것으로 판단.

또 연준은 유럽과 중국의 생각보다 나은 경제 성장 등이 시장의 낙관을 유발했다고 인정했으나, 동시에 경기 전망은 하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향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는 점은 이들 역시 향후의 정책 결정은 경제지표 의존적일 것임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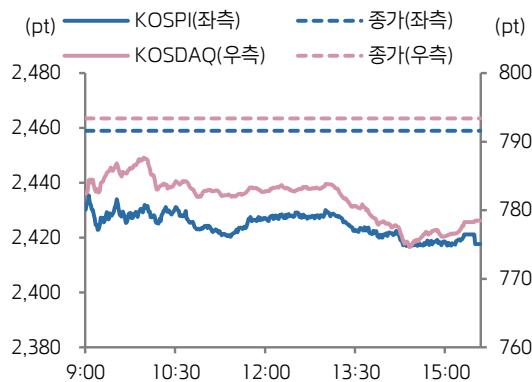
결국 금번 의사록은 다분히 매파적이긴 했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매크로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바텀업 관점에서 개별 업종 플레이를 하는 전략이 유효한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급락, 원/달러 환율 1,300 원대 진입 등 매크로 상 악재성 재료가 출현한 영향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세에 나서면서 급락 마감(코스피 -1.7%, 코스닥 -1.9%).

금일에도 매파적이었던 2 월 FOMC 결과, 오전 중 금통위 결과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출현 하겠으나,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등이 지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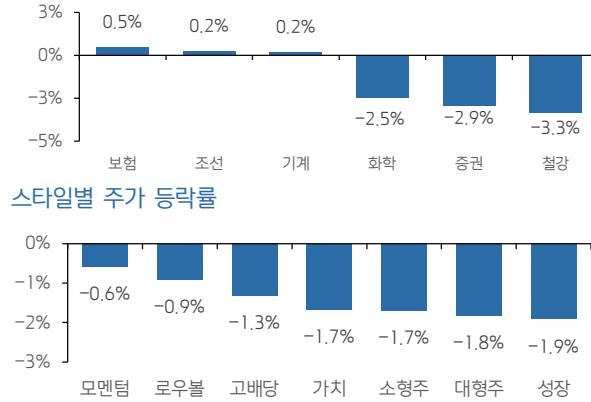
또 미국 장 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0.5%)가 게임 및 AI 사업부문 호조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EPS \$0.88, 컨센 \$0.81)를 기록함에 따라 시간외에서 8%대 내외의 주가 폭등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최근 단기적으로 조정국면을 맞이했던 AI, GPT, 반도체 등 관련주들의 투자심리 호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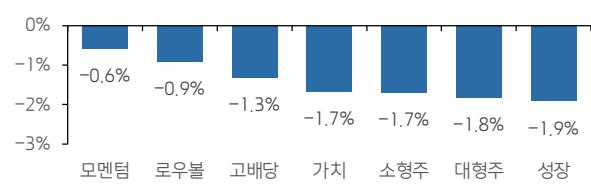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